

www.eai.or.kr

EAI 컨퍼런스 “쿠데타 이후, 미얀마 민주주의의 미래”

The Military Coup and Future of Democracy in Myanmar

**제1세션. 미얀마 총선(2020) 후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

**Session I. Presentation on the Post-General
Election Survey in Myanmar**

**미얀마 2020 총선 후 설문조사
:선거 공정성 및 민주주의 인식**

제1세션. 미얀마 총선(2020) 후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

미얀마 2020 총선 후 설문조사 : 선거 공정성 및 민주주의 의식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동아시아연구원(EAI)이 미얀마 시민사회 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미얀마에서 선거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연구 성과로 발간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미얀마와 같이 외부에 공유된 자료와 정보가 충분하지 않고, 연구자 또한 매우 적으며 접근이 쉽지 않은 지역에 직접 발로 뛰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 같아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서베이는 현 군부가 부정으로 얼룩졌다는 총선의 공정성과 총선 이후 구성될 정부에 대한 시민의 기대 등 두 갈래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토론에 앞서 먼저 조사 대상인 꺼친주(까친주)와 만달레주는 매우 대조적인 지역입니다. 꺼친주(Kachin State, 170만 명)는 꺼친족이 다수(약 40%)를 이루면서도 장기간 꺼친주의 자치를 희망하는 꺼친 독립기구(KIO)의 영향력이 막강한 지역입니다. 또한, 식민시기 기독교를 받아들여 주민의 33.8%가 기독교도(불교는 64%)입니다. 흔히 미얀마 사회가 버마족과 불교도 중심으로 묘사 되는 것을 참조할 때 꺼친주는 지역색이 있는 곳입니다.

이와 반대로 만달레주(Mandalay Region, 610만 명)에는 마지막 왕조 쯔바웅의 수도들이었던 쉐보(Shwebo), 아마라뿌라(Amarapura), 만달레(Mandalay)와 함께 현 수도인 네삐도(Nay Pyi Taw)가 있으며, 미얀마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도가 전체 인구의 96%를 차지하니 전체 인구에서 불교도(약 90%)보다 많으며, 버마족이 집중적으로 거주합니다. 메익틸라(Meiktila)는 미얀마 최대의 군사도시이므로 친군부정당으로 알려진 USDP의 선전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15년 총선에서 국민민주주의연합(NLD)이 버마족이 거주하는 지역(Region)에서 절대적 압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2020년 총선에서도 해당 지역에서 NLD의 승리는 기정사실화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꺼친주는 2010년 총선, 2015년 총선에서 꺼친족 소수종족 정당(지역 정당)이 난립하여 의석수 획득에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이를 교훈으로 2020년 총선에서는 세 개의 정당이 통합했습니다.

<표 5> 꺼친주 지역 정당의 통합

기존 정당(의석수 점유: 상-하-지방, 2015 기준)	통합 신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Kachin Democratic Party (-) •Kachin State Democracy Party (0-1-3) •Unity and Democracy Party of Kachin State (0-0-1) 	Kachin State People's Party

두 지역의 총선 결과는 <표 2>와 같습니다. 꺼친주의 경우 NLD가 의석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USDP가 상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꺼친 지역정당의 통합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NDP)이 의석수를 차지함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통합의 과제를 받았습니 다. 리수족(Lisu) 정당(LNDP)는 리수족 거주지역에서 지방의회 당선자를 배출했으므로 이와 같은 구도는 향후 선거에서도 유지될 것입니다.

<표 6> 꺼친주와 만달레주 총선 결과

		NLD	USDP	KSPP	SNLD	NDP	LNDP	무소속	합계
꺼친주	상원	10	1			1			12
	하원	12	5	1					18
	지방	28	4	3	1	1	2	1	40
만달레주	상원	12							12
	하원	35	1						36
	지방	57							57

NLD(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국민민주주의연합
 USDP(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 연방단결발전당
 LNDP(Lisu National Development Party) 리수족발전당
 KSPP(Kachin State People's Party) 꺼친주국민당
 NDP(New Democratic Party-Kachin) 신민주당-꺼친
 SNLD(Shan Nationalities League for Democracy) 산족민주주의연합

2015년 총선에서 USDP는 만달레에서 15석(상 2, 하 5, 지 8)을 차지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네삐도 한 지역에서 USDP 대표가 당선된 것을 제외하고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군사도시인 메익틸라에서도 NLD가 승리했으니 민심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USDP는 버마족이 다수 거주하는 행정주(Region)에서 상원의석을 단 한 석도 차지하지 못했고, 하원도 3석을 차지하는데 그쳤습니다. 사실상 USDP의 위기가 가시화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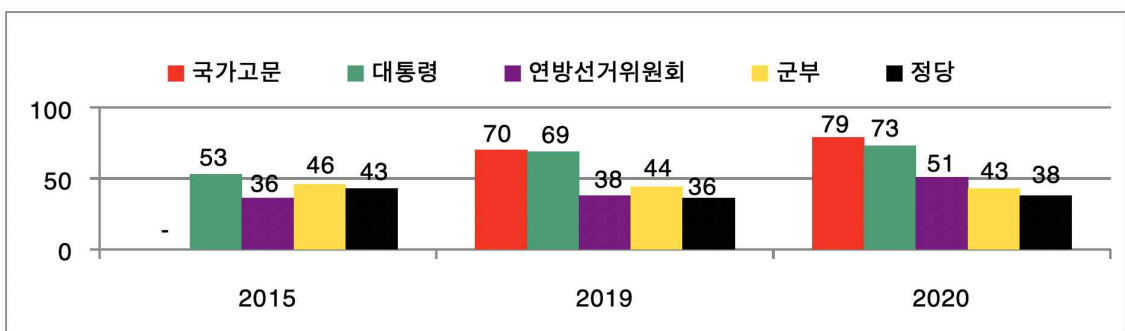
군 수뇌부를 비롯하여 USDP는 축소될 영향력을 우려했고, 급기야 총선이 끝난 뒤 선거부정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쿠데타의 명분도 선거부정이었고, 쿠데타 이후 새로 임명된 연방선거위원회는 유권자 명부부터 조사하여 국영언론을 통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NLD 정부의 선거 자체가 엉터리였다고 항변합니다.

Asian Barometer Survey(2015)에 따르면 응답자의 55%, 62%가 2010년과 2015

년 총선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졌고, 치러질 것으로 답했으나 PACE(People's Alliance for Credible Elections)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총선은 응답자의 94%가 자유롭고 공정한 총선을 예상했다. 그럼에도 연방선거위원회(UEC)의 독립성과 중립성, 업무 역량 문제로 공정한 선거에 대한 의문은 제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UEC 소속 15인의 위원이 모두 NLD와 가까운 관계이고, 아웅산수찌 국가고문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선거 연기 여론이 형성되자 UEC의 의견을 배제하고 선거 강행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국내 NGO뿐만 아니라 휴먼라이츠워치(HRW)조차 정부 비판에 대한 형사 처리, 관영 언론의 특정 정당 차별과 경쟁 정당에 대한 검열, 선거 감시자의 활동 제한, UEC의 독립성과 문제 해결 역량 부족 등을 지적했습니다. 총선이 끝난 후 연방선거위원회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선거부정 관련 의혹을 일축했으나 이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군부와 친군부 정당을 만족스럽게 하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한편, 아웅산수찌 정부의 국정 수행 평가는 그리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PACE(2020, 27-28)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 영역과 수입 증가에 대한 평가는 긍정보다 부정의 높고, 인프라가 약간 개선된 것 이외에 정부의 성적표는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국가고문, 즉 아웅산수찌에 대한 높은 신뢰도는 군부와 정당의 불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림 3>참조). 이는 EAI의 조사 결과인 미얀마 미래에 대한 전망에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즉 버마족이 다수를 이루는 만달레주에서는 아웅산수찌와 NLD에 대한 막연한 신뢰와 기대감을 놓지 않고, 꺼치주의 경우에는 그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 3〉 국가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 (단위: %)



출처: PACE(2020a, 20), Welsh and Huang(2016, 57)에서 재작성.

군부 쿠데타와 관련하여 EAI의 조사대로 국민 절대 다수는 명분이 없으며 군부 통치에도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 명백해 보입니다. 시민의 힘으로만 군부를 이길 수 없으니 국제사회의 적극적 개입을 희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

전히 국민통합이 완성되지 않는 미얀마에서 외부 세력의 개입에 의한 민주주의의 회복은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장래 혼란보다 현재 상황을 수습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향후 기회가 있을 경우 꺼친주보다 더 다양성으로 대변되는 산주(Shan State)와 같은 지방에서도 연구 수행을 기대해 봅니다.■

참고문헌

PACE(People's Alliance for Credible Elections). 2020a. *2020 General Elections: Preliminary Report of Pre-election Survey*. Yangon: PACE.

<https://www.pacemyanmar.org/pre-election-2020>

Welsh, Bridget and Kai-Ping Huang. 2016. *Myanmar's Political Aspirations & Perceptions 2015 Asian Barometer Survey Report*. Taiwan: National Taiwan University.

■ **저자:** 장준영_서강대에서 동남아학과 정치학 석사(2003)를 취득, 미얀마 군부 연구로 한국외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2009)를 취득했다. 주요 저서로는 『미얀마 외교정책의 변화와 주요국과의 관계』, 『미얀마의 경제경제와 개혁개방: 성과와 과제』, 『하프와 공작새: 미얀마 현대정치 70년사』, 『언어 평등 미얀마어 첫걸음』 등이 있다. 주요 일간지를 비롯하여 다수의 언론 매체에 미얀마 관련 기고를 꾸준히 하고 있다. 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 책임연구원, 북벙골만연구단 연구교수, 인도연구소 연구교수를 거쳐 현재 미네르바 교양대학에서 재직 중이다.

■ **담당 및 편집:** 전주현_EAI 연구원

문의: 02-2277-1683 (ext. 204) jhjun@eai.or.kr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0454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 4가 삼풍빌딩)
Tel. 82 2 2277 1683 Fax 82 2 2277 1684

Email eai@eai.or.kr Website www.eai.or.kr